



추신수 사이클링 히트

ML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텍사스 8번째 피츠버그 강정호는 8경기 연속 안타 행진

추신수(33)가 22일 메이저리그에서 뛰 아시아인 최초이자 텍사스 레인저스 역대 8 번째로 사이클링 히트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후반기 들어 선발 출전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할 정도로 깊은 부진에 빠져 있던 추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수립한 것도 기적적이지만 가장 어렵다는 3루타를 9회 마지막 타석에 쳐내 대기록을 완성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이날 사이클링 히트는 올시즌 두 번째다. 앞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브록 홀츠가 지난달 17일 대기록을 달성했다. 텍사스 구단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것은 2013년 9월23일 알렉스 리오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이다.

추신수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한 방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3타점 3득점의 대활약으로 팀의 9-0 대승을 이끌었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초반부터 화끈하게 불이 붙었다. 2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나선 추신수는 콜로라도 오른손 선발 카일 캔드릭의 시속 86마일(138km)짜리 초구 커터에 공략해 1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쳐냈다. 시즌 16번째 2루타다. 이후 후속타자 때 3루로 진루한 뒤 홈을 밟는 데 성공했다.

추신수는 3-0으로 앞선 4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캔드릭의 4구째 시속 88마일(142km)짜리 싱커를 배럴같이 잡아당겨 오른쪽

팬스를 훌쩍 넘어가는 비거리 127m의 대형 솔로아치를 그렸다. 지난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이후 20일 만의 홈런으로, 시즌 12호다.

5회초 1사 1-3루에서는 좌완 프란데의 초구를 공략해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중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방망이가 살아난 추신수는 곧바로 시즌 2호 도루까지 성공하며 필멸 날았다.

추신수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대기록을 완성했다. 9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역시 좌완 투수인 렉스 브러더스로부터 중견수 키를 넘겨 팬스를 직접 맞고 튀어나오는 장타를 터뜨린 뒤 총알같이 베이스를 돌아 3루에 안착, 대망의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추신수는 후속타자 타석 때 득점도 올렸다. 5타수 4안타(1홈런) 3타점을 터뜨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26에서 0.235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우익수로서도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빈틈없는 수비를 펼쳤다.

6-0으로 앞선 5회말 2사 1, 3루에서는 트이 톨로워츠키의 빠른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 실점 위기를 넘겼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콜로라도를 9-0으로 물리쳤다.

전반기 타율 0.221(307타수 68안타), 홈런 11개, 38타점으로 시즌 반환점을 돌았던 추신수가 이날 맹활약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대통령배 고교야구 결승 진출

최지훈 맹활약, 덕수고 11-4 제압... 오늘 8년만에 정상탈환 나서

광주일고가 8년 만에 대통령배 탈환에 나선다. 광주일고(교장 양정기)가 2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 49회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에서 '1이닝 멀티 히트'를 기록한 주장 최지훈의 활약 속에 11-4 대승을 거뒀다. 난적 덕수고를 넘으면서 2007년 이후 8년 만에 대회 정상에 노리게 됐다.

1회부터 광주일고의 집중력이 발휘됐다. 공격의 전면이 최지훈이 있었다.

1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온 최지훈이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터트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태진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2루. 류승현의 볼넷으로 만루를 채운 광주일고는 최승훈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가면서 행운의 선취점을 만들었다. 광봉준·정찬식의 연속 안타에 이어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1루수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5-0, 최지훈이 다시 타석에 섰다.

타자 일순해 맞은 1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최지훈은 김우종의 중전안타로 홈까지 오면서 8-0까지 만들었다.

최지훈은 승부에 쐬기를 박는 공격적인 주루

도 선보였다. 3회 내야안타로 출루한 최지훈은 김우종의 좌전 안타 때 3루까지 파고들며 상대를 흔들었다. 김태진의 2루수 앞 땅볼로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등 4타수 3안타 2타점 3득점으로 광주일고의 공격을 주도했다.

2번 타자 겸 2루수로 나온 김우종은 10-4로 앞선 8회 좌측 풀 맞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팀 승리를 자축했다.

광주일고는 23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우승 컵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광주일고는 2007년 에이스 정찬현을 앞세워, '멀티 홈런' 안치홍·'눈물의 역투' 이형중으로 화제가 된 서울고를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팔꿈치 수술 김진우 시즌 마감

유창식은 복귀 준비중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가 수술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투수 김진우가 22일 서울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뱃조각 제거수술을 받았던 김진우는 다시 수술대에 오르면서 2015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올 시즌에도 부상에 막히면서 김진우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즌 출발부터 벼락거렸다.

지난 겨울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진우는 감기 몸살 여파로 시즌 초 진행된 체력테스트에서 탈락하는 등 어렵게 시즌을 시작했다.

오키나와 1군 캠프 대신 2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그는 캠프 막바지에는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종아리 부상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팔꿈치 통증이 찾아오면서 다시 복귀 시점이 늦춰졌다.

이런저런 부상으로 출발선에서 밀린 김진우는 지난 6월1일이 돼서야 시즌 첫 등판을 소화했다. 롯데를 상대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김진우는 6월9일 두 번째 피칭을 한 뒤 6월13일 삼성과의 대결에서 선발로 자리를 옮겼다. 6이닝 6피안타(1피홈런) 1볼넷 8탈삼진 1실점의 피칭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6월19일, kt 타자들에게 3.1이닝 동안 5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3실점을 하며 조기 강판됐다.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활군으로 내려갔지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수술을 받게 됐다.

김진우의 시즌이 마감됐지만 좌완 유창식은 부상에서 회복해 실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왼쪽 어깨 통증으로 엔트리까 말소됐던 유창식은 재활군에서 탈출해 3군에서 공을 만지고 있는 상태다. 22일 삼성 3군와의 연습경기 등판을 준비했던 유창식은 '공을 던지기에는 100% 상태가 아니다'는 코칭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실전 등판을 잠시 미뤘지만, 순조롭게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레전드' 선동열·이만수·김시진에 야구 배워요

8월 18~20일 유소년 캠프

선동열·이만수·김시진 전 감독 등 '레전드 빅 3'가 야구 꿈나무들과 만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연전 고대산 베이스볼파크에서 2015 KBO 유소년 야구캠프(8월18일~20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정열을, 온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는 프로야구 원년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야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KBO리그를 대표하는 전설과 미래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만수 전 감독의 멘토 특강 등 3명의 전설은 직접 강사로 나서 야구의 기본과 실전 교육을 실시한다. 각 30명씩 선동열 팀, 김시진 팀, 이만수 팀으로 나눠 토너먼트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캠프파이어, 레크리에이션, 5사단 열쇠전망대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에게는 3명의 레전드 사인볼과 기념 티셔츠, 모자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 된다.

이번 야구캠프는 2015년 대한야구협회와 리틀야구연맹에 등록된 초등학교 및 리틀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KBO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는다. 참가 인원은 90명(리틀 45명, 초등학교 45명). 추첨을 통해 선동열 팀, 김시진 팀, 이만수 팀 등 각 30명씩 선발한다. 참가비는 1인 5만원으로 추첨 결과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